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4호

서울시 저출산 현황분석 : 고용률과 주택구매력을 중심으로

장진희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성가족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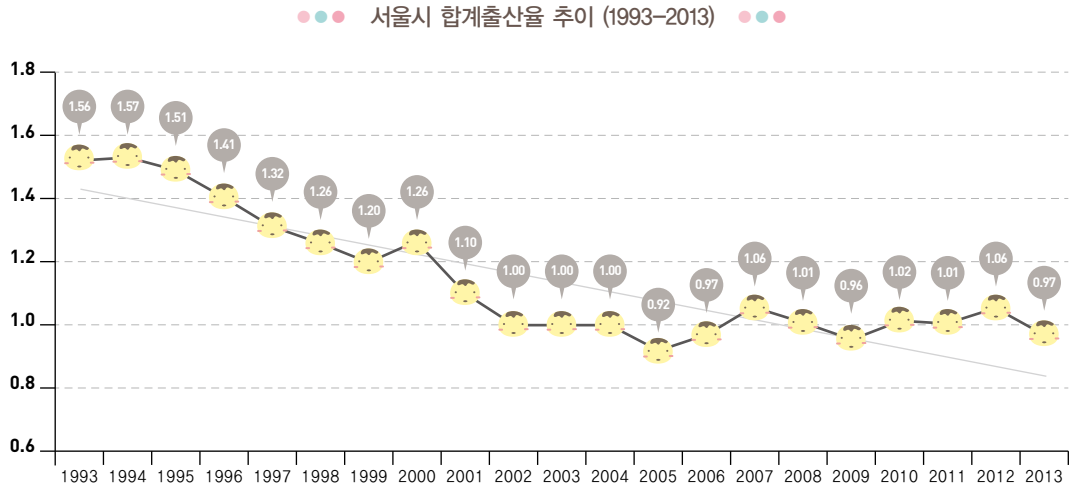
2014 제4호

서울시 저출산 현황분석 : 고용률과 주택구매력을 중심으로

장진희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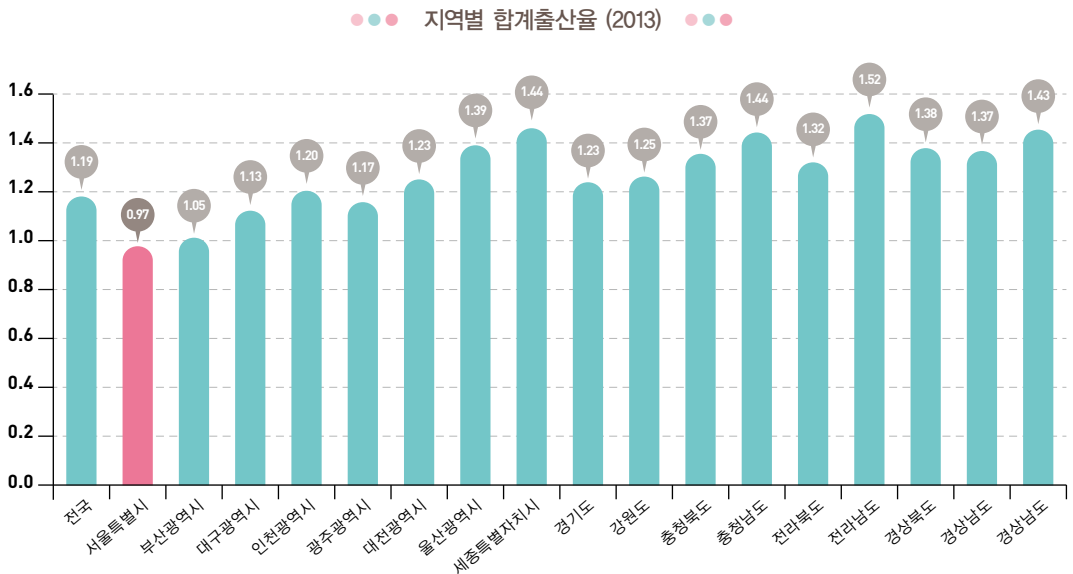
I. 서울시 저출산 현황

○ 서울시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 2013년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1993년 1.56명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1993년도 대비 0.59명 감소한 0.97명으로 나타남. 특히 IMF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도부터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사회로 진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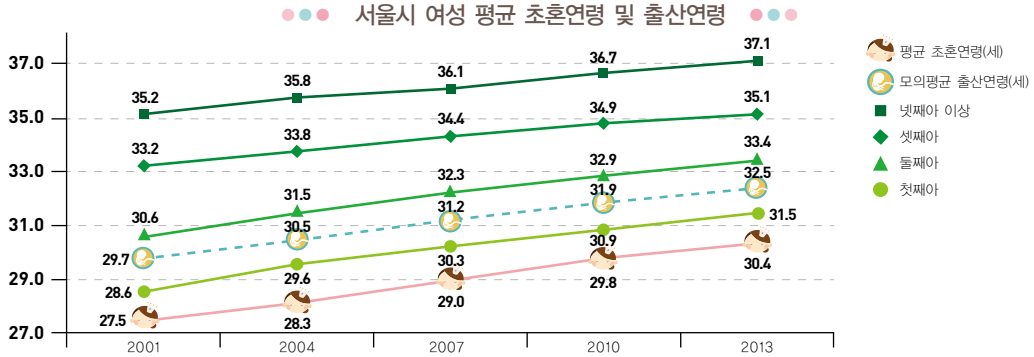
주 : 가임여성 1명당 명 (단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 2013년도 서울시 합계출산율 0.97명은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1.19명에 비해 0.22명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인 전라남도 1.52명보다 0.55명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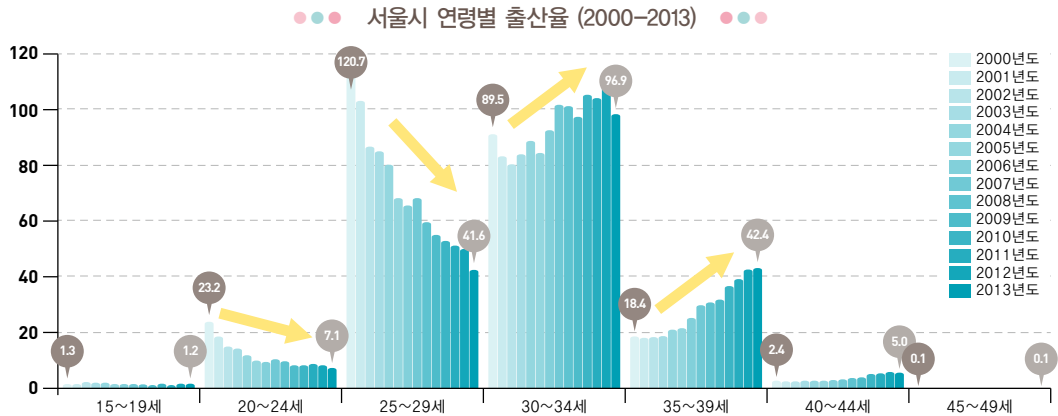
II. 서울시 저출산 원인

● **만혼·늦은 출산** : 서울시 평균 초혼연령 32.5세, 평균 출산연령 30.4세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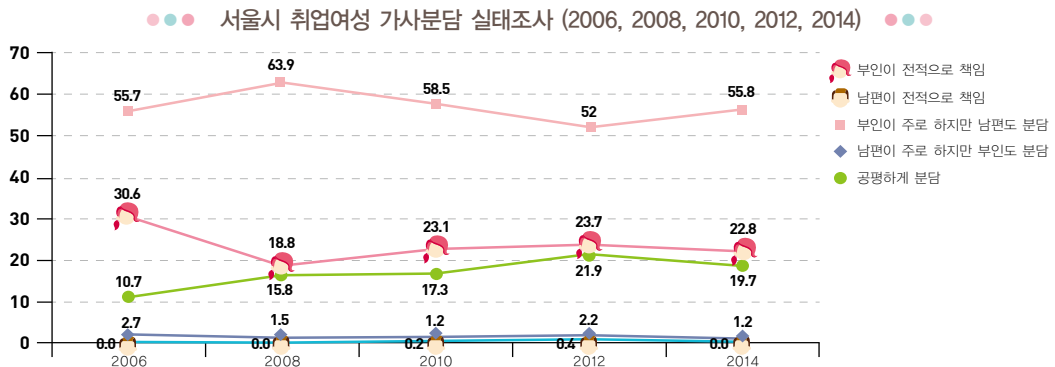
•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주 출산연령대의 변화



주 : 연령범주별 출산율 중 좌측은 2000년도, 우측은 2013년도 출산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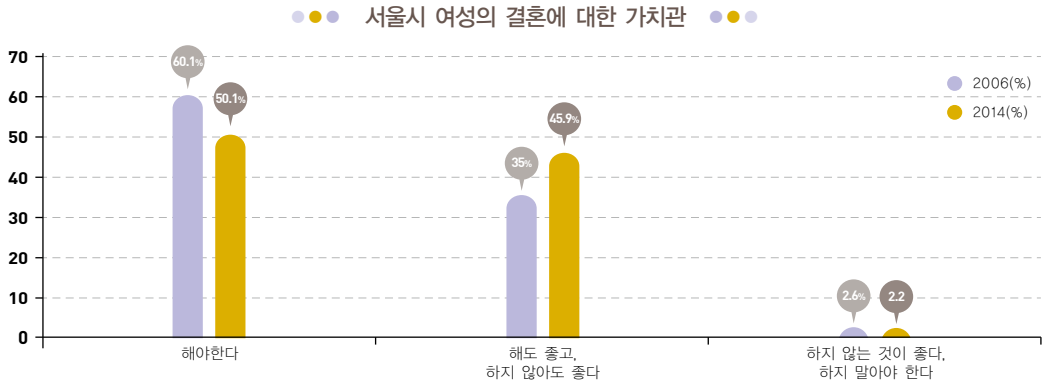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취업여성의 가사분담 78.6%, 남성이 분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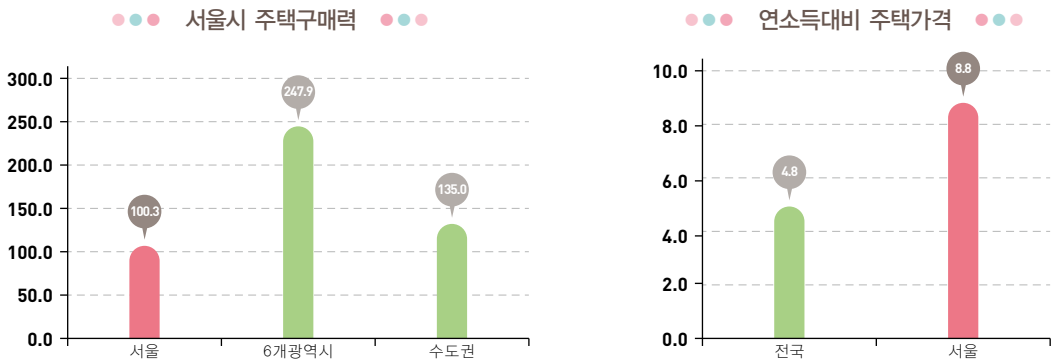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4, DB웹서비스

○ 결혼선호 가치관 변화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여성은 60.3% ⇨ 50.1%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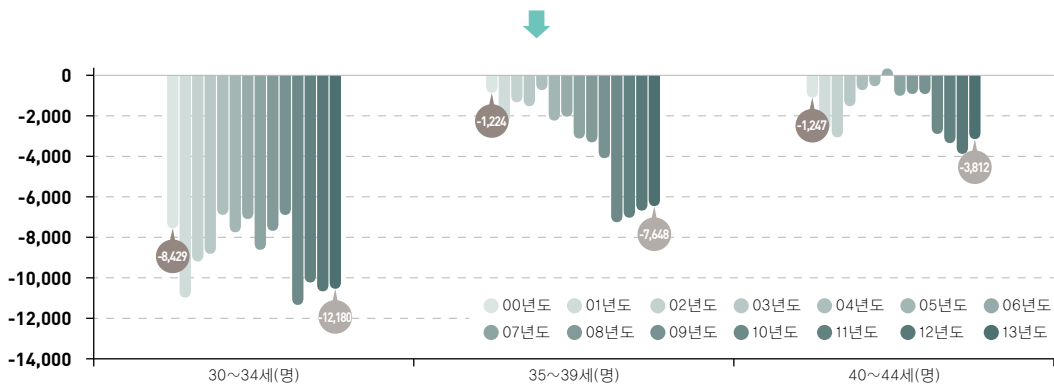


-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는 서울시 여성은 2006년도 60.1%였으나 2014년도 50.1%로 10%p 감소함
- 또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는 응답은 2006년도 35.0%에서 2014년도 45.9%로 10.9%p 증가함

○ 높은 주택가격 : 전국대비 2배 이상 어려운 주택구매,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지속적 인구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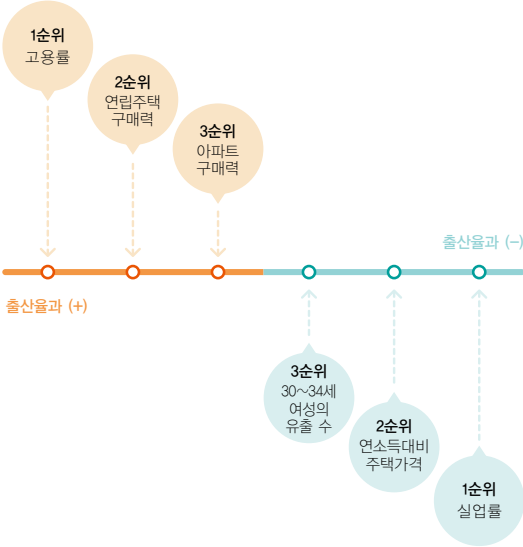


- '서울시의 주택구매력은 100.3으로 6개 광역시 247.9, 수도권 135.0에 비해 매우 낮으며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역시 전국 4.8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8.8을 보임
- '경제적 기반이 약한 서울시 신혼부부는 주택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주 출산연령대는 30~39세 여성은 2000년도 이후 서울시를 빠져나가는 인구수가 서울시에 들어오는 인구수를 크게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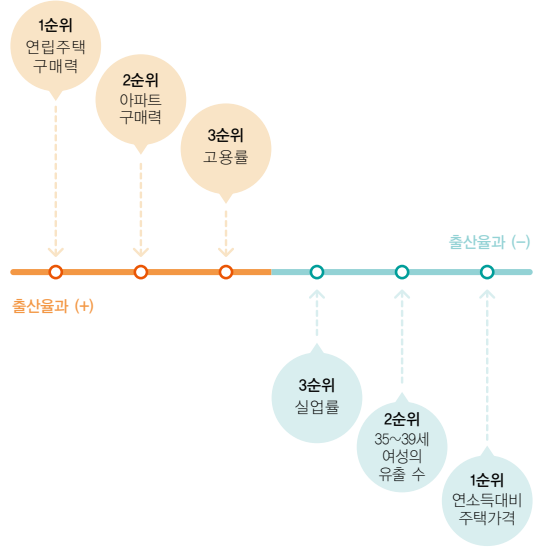
Ⅲ. 서울시 주 출산연령(30~34세, 35~39세)의 저출산 원인

●●● 서울시 30~34세 여성의 저출산 요인 ●●●



- 서울시 30~34세 여성의 고용률과 주택구매력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실업률은 출산율을 가장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연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과 30~34세 여성의 유출 수 순으로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 35~39세 여성의 저출산 요인 ●●●



- 서울시 35~39세 여성 역시 고용률과 주택구매력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으며 고용률보다 주택구매력(주택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연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주택불안정)은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 주택안정이 가장 큰 요인임.

Ⅳ. 정책적 제언

●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고용률과 주거안정

- 서울시 30~39세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출산율은 고용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제력과 연결되는 문제이며 경력력은 다시 주택구매력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 및 경제적 안정 확보를 위해 안정적이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복리후생 제도의 사용이 용이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또한 이미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직업교육 또한 요구되어짐.
- 일·가정 양립의 이뤄지지 않는다면 만혼·늦은 출산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안정과 더불어 가사일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
- 신혼부부 우선순위에 배정되는 장기전세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확보가 필요함. 장기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구매력을 올리는 방안이 요구됨.

CONTENTS

I	서울시 출산율과 주 출산연령대의 변화	08
II	서울시 저출산의 원인	12
III	서울시 저출산의 원인분석 및 정책적 제언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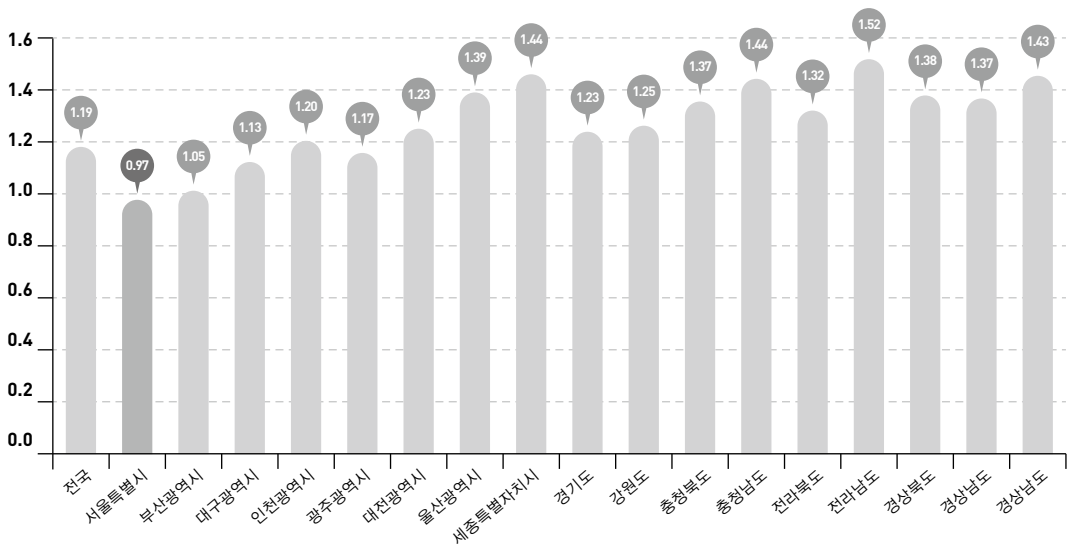
[그림 1-1]	지역별 합계출산율 (2013)	08
[그림 1-2]	서울시 합계출산율 추이 (1993-2013)	09
[그림 1-3]	서울시 여성 평균 초혼 및 출산연령 (2000-2013)	10
[그림 1-4]	서울시 연령별 출산율 (2000-2013)	11
[그림 2-1]	서울시 석·박사과정 여성의 수 (2004-2013)	12
[그림 2-2]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08-2014)	13
[그림 2-3]	서울시 여성 가사분담 실태 (2006, 2008, 2010, 2012, 2014)	14
[그림 2-4]	서울시 성별 결혼에 대한 견해 (2014)	15
[그림 2-5]	지역별 주택(아파트)구매력지수(HAI) (2008-2014)	16
[그림 2-6]	지역별 주택(연립)구매력지수(HAI) (2008-2014)	17
[그림 2-7]	주택가격 및 소득분위별 PIR	18
[그림 2-8]	서울시 여성 연령범주별 순 이동자 수 (2000-2013)	19
[그림 2-9]	서울시 남성 연령범주별 순 이동자 수 (2000-2013)	20



I 서울시 출산율과 주 출산연령대의 변화

- 2013년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¹⁾은 0.97명으로, 서울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가 1명 이하임을 의미함. 또한 이와 같은 서울시의 출산율은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명이상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그림 1-1] 지역별 합계출산율 (2013) ●●●



주 : 가임여성 1명당 명 (단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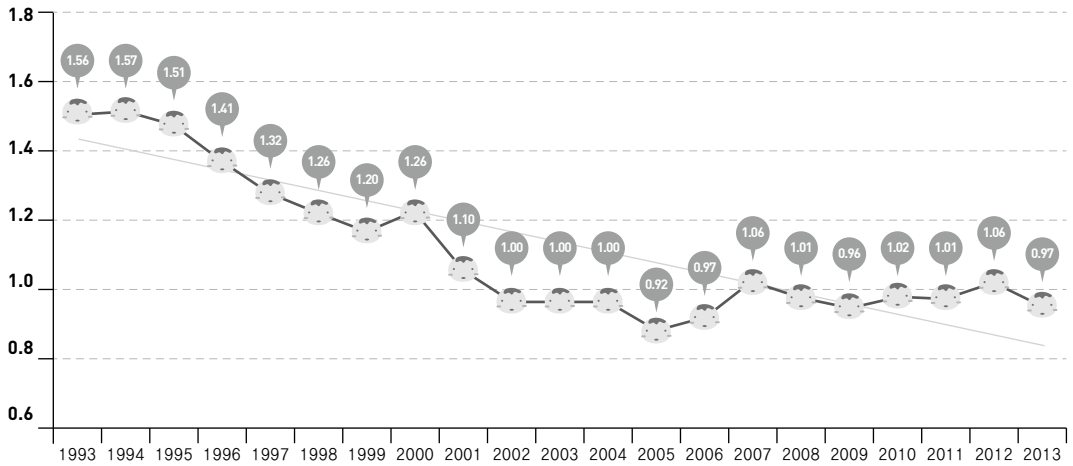
- 서울시의 출산율은 1994년도 이후 2013년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0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이와 같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저출산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도시의 활력, 경제기반 인구의 감소를 야기함.

1) 일반적으로 출산율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을 의미하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합계출산율은 연령별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 ASFR)의 총합으로 산출된다.

$$\text{합계출산율} = \{ (5\text{세 단위별 출산율 출산율의 합}) \div 1,000 \} \times 5$$

$$\text{연령별출산율} = \frac{\{15\sim 49\text{세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당해\text{연령별}\text{여성인구}\}} \times 1,000$$

●●● [그림 1-2] 서울시 합계출산율 추이 (1993-2013)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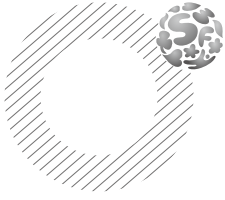
서울시 여성의 만혼과 늦은 출산

- 2013년도 서울시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도 27.3세 대비 3.1세 상승한 30.4세였으며 이는 만혼화²⁾로 이어짐.
- 서울시 여성의 평균출산연령은 2000년도 29.5세에서 2013년도 33.4세로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이상의 평균출산연령도 상승함.
- 첫째 아 평균 출산연령은 2000년도 28.4세에서 2013년도 31.5세로 높아짐에 따라 둘째 아 이상의 출산시기 가 지연, 만산화³⁾를 야기.
- 산모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가임기간(15-49세) 중 실제 출산가능기간의 단축을 의미함⁴⁾.

2) 만혼(晩婚, late marriage)은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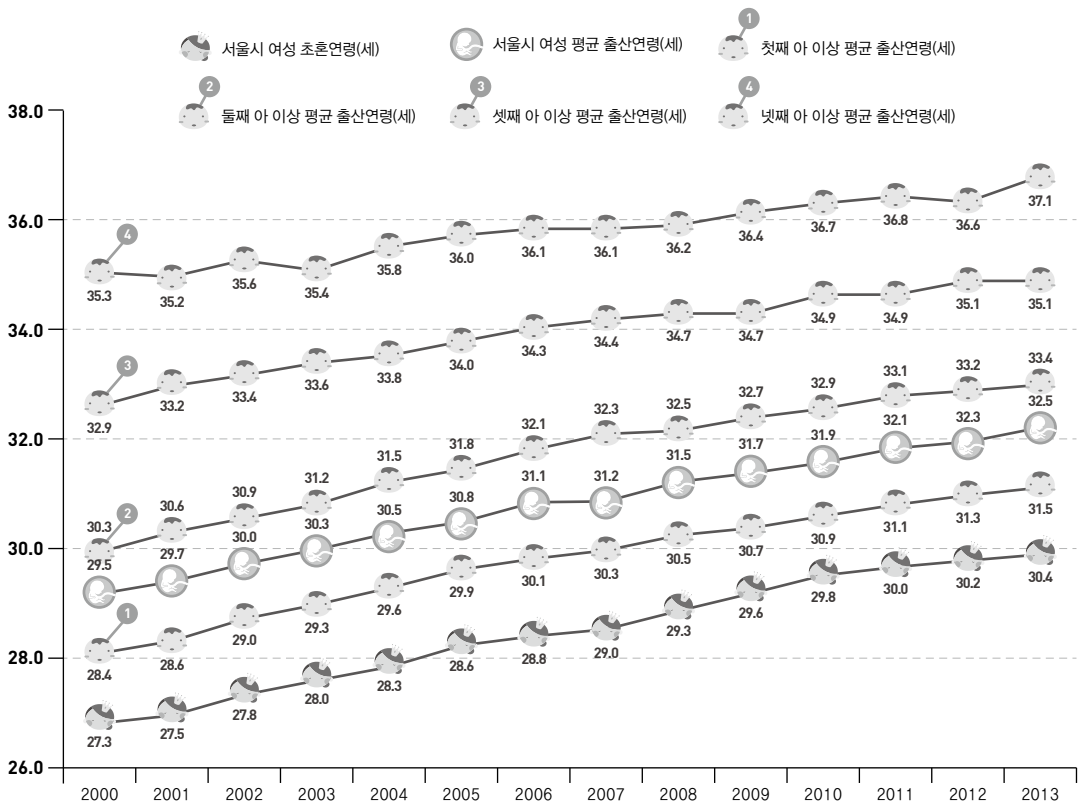
3) 만산(晩産, late fertility)은 나이가 들어 늦게 출산하는 것을 의미.

4)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센터장)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은 물론 교육 걱정 때문에 아이를 쉽게 낳지 못한다.' 2014.07.01, 한국경제 인터뷰.



- 2013년도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출산분포는 첫째 아 평균 출산연령 32.5세부터 넷째 아 이상 평균 출산연령은 37.1세까지 분포되어 있음.

●●● [그림 1-3] 서울시 여성 평균 초혼 및 출산연령 (2000-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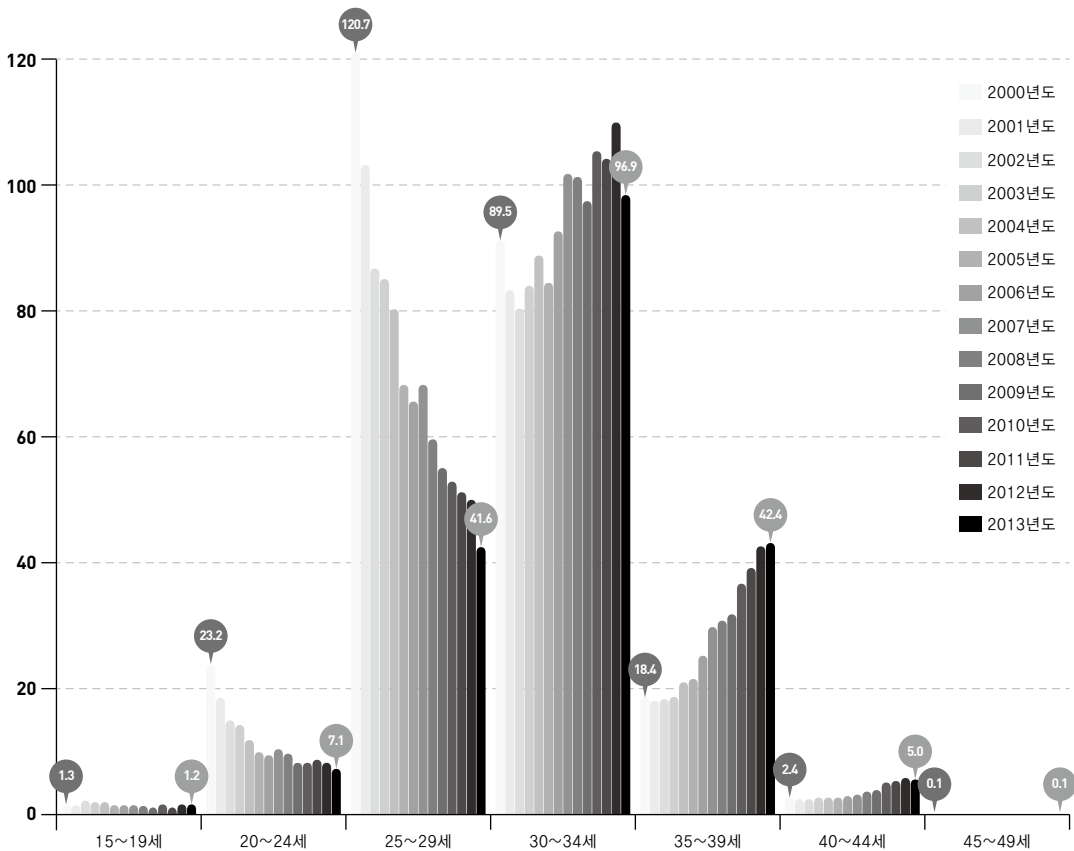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 아래의 [그림 1-4]는 서울시 연령별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시 15~29세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 30~44세 여성은 2000년도에 비해 출산율이 증가함.
- 서울시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도 120.7명이었으나 2013년도 41.6명⁵⁾으로 가장 큰 감소를 보임. 또한 서울시 20~24세 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도 23.2명에서 7.1명으로 감소함.

5) 2013년도 서울시 25~29세 출산율은 서울시 여성 1,000명당 41.6명의 출산을 의미한다.

- 2013년도 서울시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도 대비 가장 큰 증가를 보였는데 2000년도 18.4명에서 2013년도 42.4명으로 증가함. 서울시 30~34세 여성의 출산율 역시 2000년도 89.5명에서 2013년도 96.9명으로 증가함.
- 서울시 여성의 주 출산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변화하였음.

●●● [그림 1-4] 서울시 연령별 출산율 (2000-2013) ●●●



주 : 연령범주별 출산율 중 좌측(붉은색)은 2000년도, 우측(흑색)은 2013년도 출산율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II 서울시 저출산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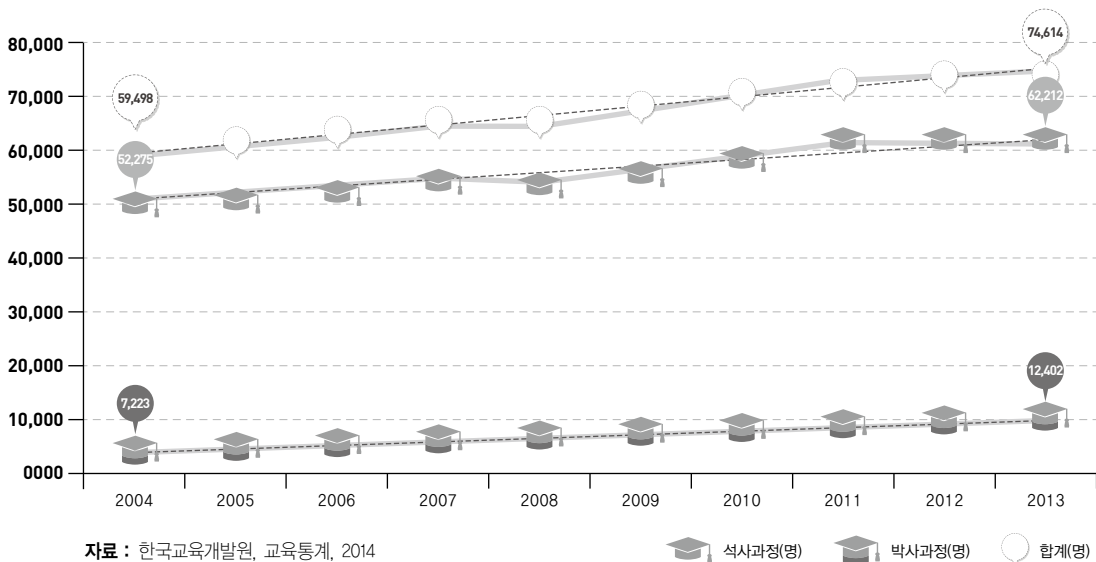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원인은...

'출산 지연 때문에...(중략)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증가, 전반적인 소득의 증가 등을 꼽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국민소득도
 향상되는데, 합계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후략)⁶⁾

○ 서울시 여성의 교육기간 증가⁷⁾

- 서울시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체 석·박사과정 여성 중 박사과정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0.12%에서 2013년도 0.17%로 0.5%p증가함.
- 서울시 여성의 교육기간 증가는 사회진출 시기가 늦춰짐과 동시에 경제적 기반마련도 늦춰질 것으로 판단됨.

●●● [그림 2-1] 서울시 석·박사과정 여성의 수 (2004-2013) ●●●



6) 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특, (68) 출산율의 정체, 한국경제, 2014.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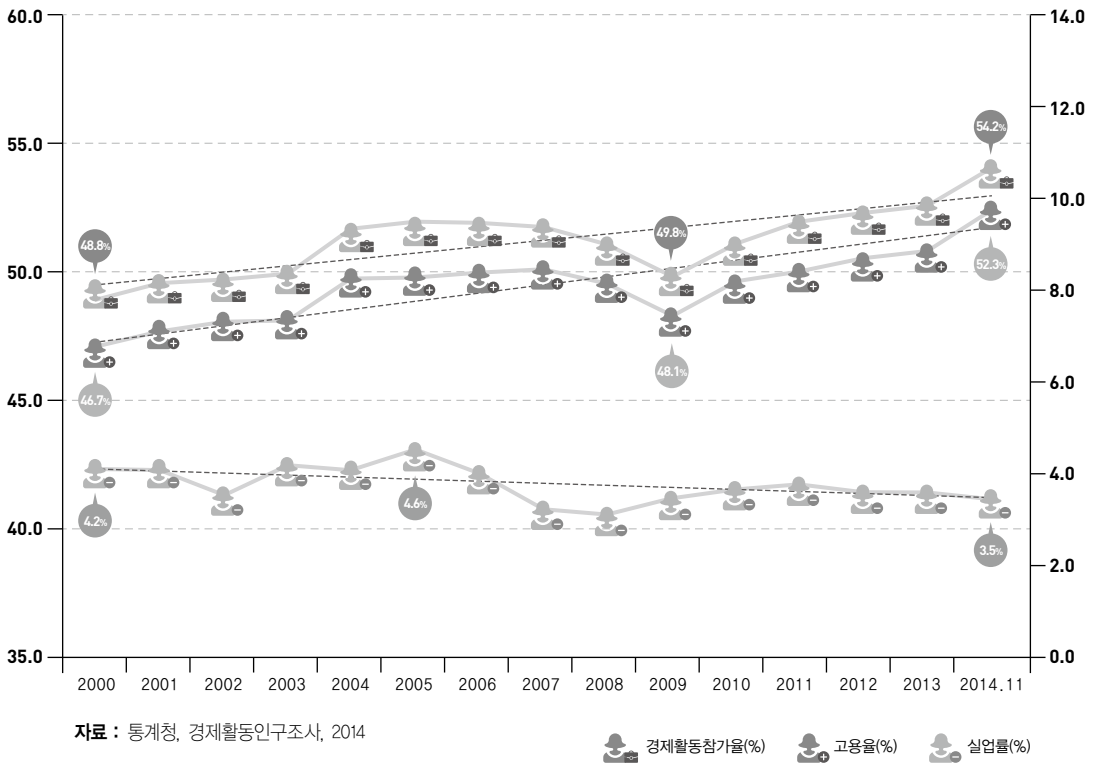
7) 교육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연구사의 평균 교육기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5년 단위조사라는 단점이 존재하여 대학원 재학생의 수를 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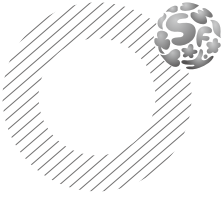
서울시 일하는 여성의 증가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상승

- 2014년 11월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도 48.8%에 비해 5.4%p 증가한 54.2%였으며 고용률의 경우 2000년도 46.7%보다 5.6%p 증가한 52.3%였음.
- 서울시 여성의 실업률 역시 2000년도 4.2%에서 0.7%p 하락한 3.5%를 나타냄.
- 이는 서울시의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의미함.

●●● [그림 2-2]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08-2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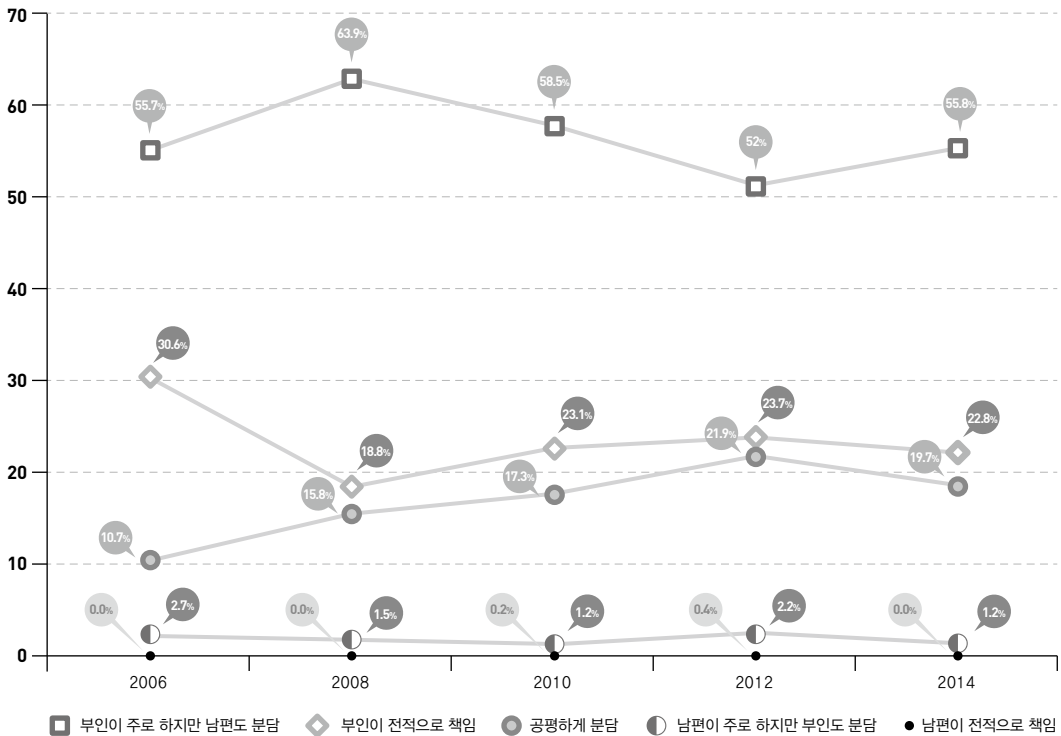




○ 여전히 높은 여성의 가사분담

- 서울시의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일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2014년 11월 서울시 취업여성의 22.8%는 가사일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30.6%에서 7.8%p 감소한 수치임.
- 가사일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취업여성은 2006년도 55.7%를 보였으나 2014년 11월 55.8%를 나타내며 거의 변화가 없음.
-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이라는 응답은 2006년도 2.7%였으며 2014년도 1.2%로 여전히 남성은 가사분담은 매우 낮음.
- 여성에 대한 높은 가사의존도는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이로 인한 출산기피,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됨.

●●● [그림 2-3] 서울시 여성 가사분담 실태 (2006, 2008, 2010, 2012, 2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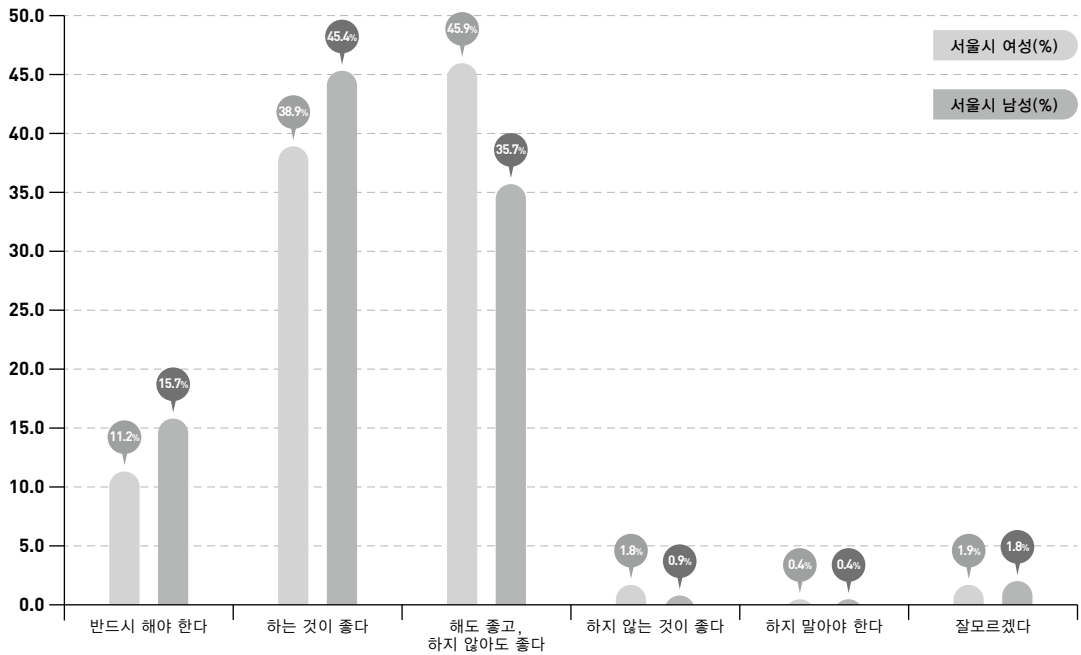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4, DB웹서비스

○ 결혼 선호 가치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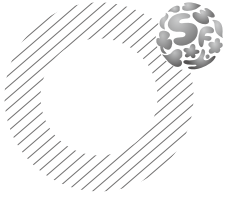
- 서울시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거나 '하는 것이 좋다' 는 견해가 70%이하로 나타남. 특히 서울시 여성의 45.9%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고 응답, 결혼을 선택으로 여김

●●● [그림 2-4] 서울시 성별 결혼에 대한 견해 (2014)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4, DB웹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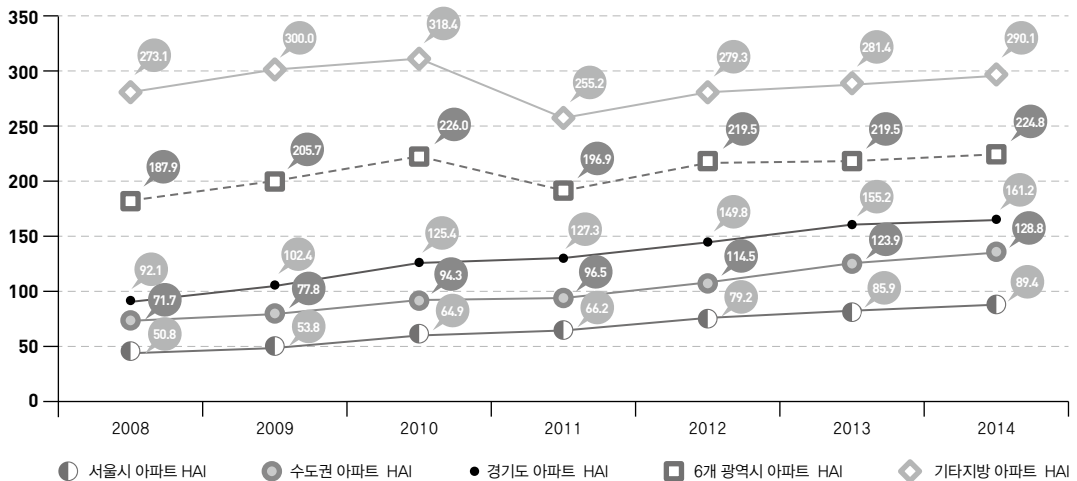
서울시의 높은 주택비용 및 순 인구이동

서울시 주택마련의 어려움 : 낮은 주택구매력,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결혼할 시기도 됐고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집을 알아보니... 너무 심해요.
제가 눈이 높은 건지 그냥 소소한 아파트인데 가격이... 시프트(shift)는 로또 수준이고 그냥 막막하네요.
직장만 아니면 솔직히 서울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사실 힘드니까 그게 ...'⁸⁾

- 서울시의 주택구매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HAI)⁹⁾는 6대 광역시, 수도권, 경기도, 기타지방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며 타 지역에 비해서 주택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5] 지역별 주택(아파트)구매력지수(HAI) (2008-2014) ●●●



주1 : 각 연도의 12월 HAI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재구성함

주2 :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6개, ▶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기타지방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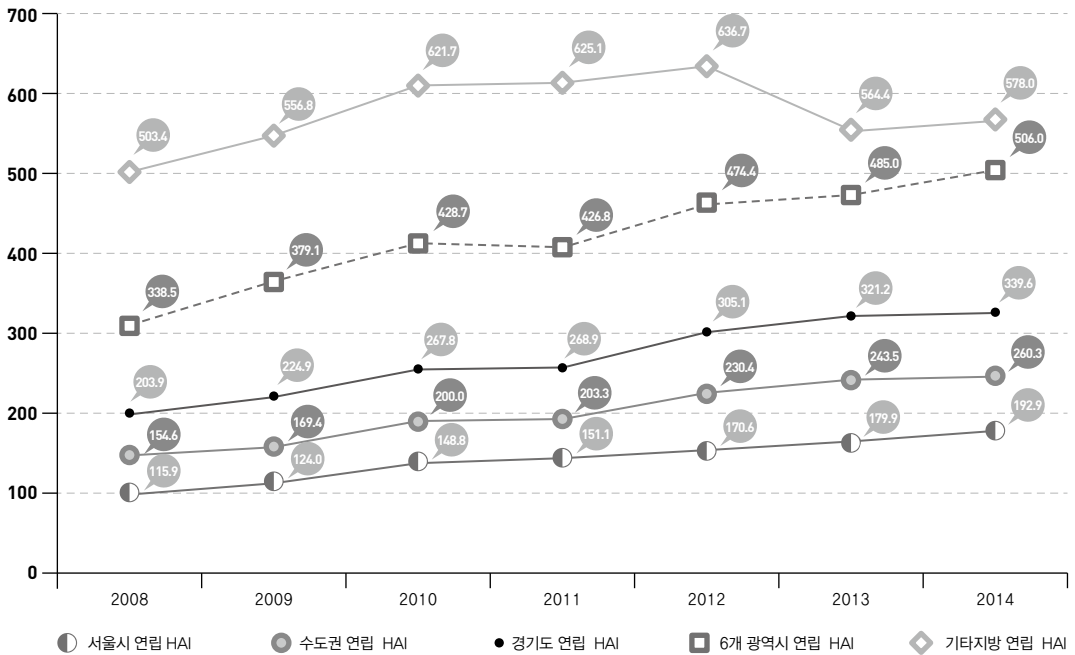
자료 : KB부동산,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2014

8) 2015년 2월 28일에 결혼을 앞둔 서울시 거주 예비 신혼부부(남 32세, 여 30세) 인터뷰

9) $HAI = (\text{중위가구소득} / \text{대출상환가능소득}) \times 100$ 으로 산출되며 HAI가 100보다 클수록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HAI가 상승하면 주택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4년도 서울시 아파트HAI는 89.4였으며 수도권 아파트HAI 128.8에 비해 39.4 낮았으며 경기도 아파트 HAI 161.2보다 71.8 낮은 수준임.
- 서울시의 아파트구매뿐만 아니라 연립주택구매 또한 어려움이 존재함.
- 2013년도 서울시 연립주택구매력은 192.9로 서울시 아파트구매에 비해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 6개 광역시, 기타지방의 연립주택구매보다는 어려움.

●●● [그림 2-6] 지역별 주택(연립)구매력지수(HAI) (2008-2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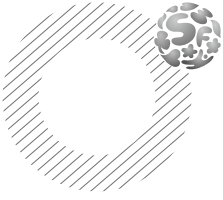
주1 : 각 연도의 12월 HAI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재구성함.

주2 :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6개. ▶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기타지방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자료 : KB부동산,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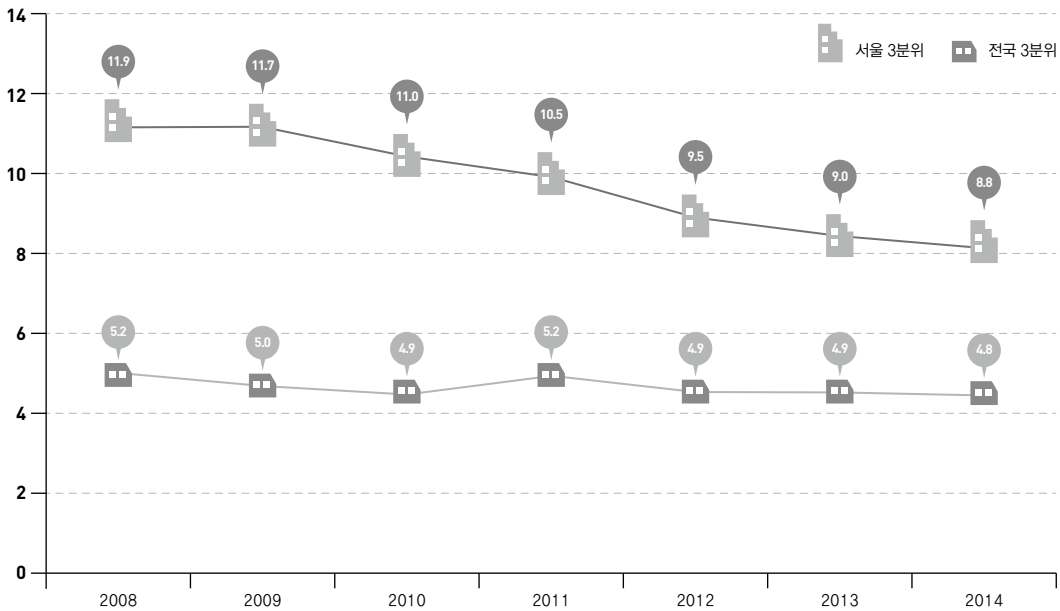
-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택PIR(Price to Income Ratio)¹⁰⁾은 2008년도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전국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음.

10) PIR(Price to Income Ratio) = (주택가격 / 가구소득)으로 산출한다. 원자료(KB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평균주택가격과 가구 연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PIR을 월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2-5]는 평균주택가격 3분위와 가구 연소득 3분위에 해당하는 연말 PIR을 나타낸다.



- 서울시 가구 3분위 연소득대비 서울시 주택 3분위 가격의 비율은 전국 4.8보다 4.0 높은 8.8을 보이며 주택구매력지수(HSI)뿐 아니라 실제 서울시 주택마련에 있어서 어려움.
- 서울시의 높은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출산의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기반이 약한 신혼부부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존재함. 또한 높은 주택비용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의 기준이 다소 높아 출산을 늦출 가능성도 함께 존재함.

●●● [그림 2-7] 주택가격 및 소득분위별 PIR ●●●



주1 : 각 연도의 12월 PIR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주2 : 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분위별 평균 소득이며, 월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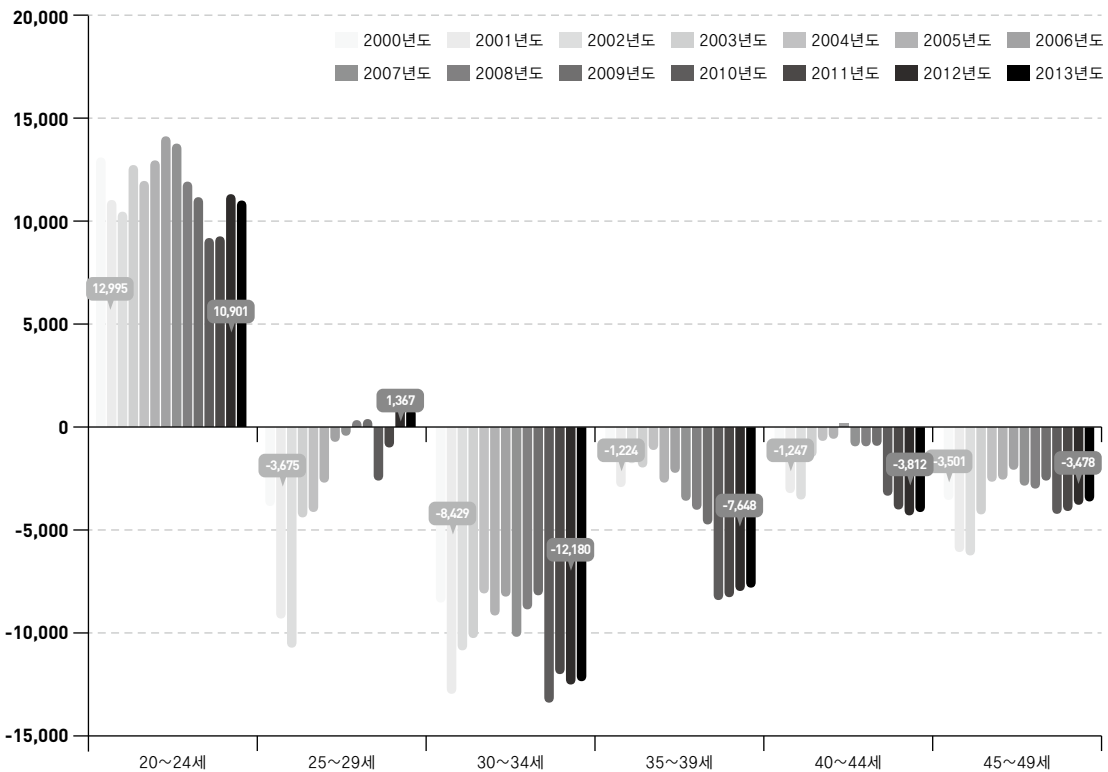
주3 : 전국지표의 가구소득은 전국(2인 이상), 전가구 기준, 주택가격은 전국기준임. 서울시표의 가구소득은 도시지역(2인 이상), 전가구 기준, 주택가격은 서울기준임.

자료 : KB부동산,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2014

○ 서울시 30~49세 여성의 지속적인 인구유출

- 서울시 30~49세 여성의 순 이동자수¹¹⁾는 지속적으로 전출초과¹²⁾ 모습을 보임,
- 2013년도 서울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대(30~34세)의 서울시 여성인구 유출은 12,180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심함.
- 서울시 30~49세 여성의 순 인구이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출되는 여성인구 수는 감소하나 여전히 서울시 유입여성보다 서울시를 빠져나가는 유출여성의 수가 많음.
- 서울시 20~24세 여성은 유입되는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서울시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대학교, 일자리 등으로 인한 유입으로 판단됨.

●●● [그림 2-8] 서울시 여성 연령범주별 순 이동자 수 (2000-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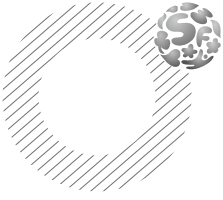


주 : 순 이동자수는 서울시 전입자 수에서 서울시 전출자 수를 감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4, DB웹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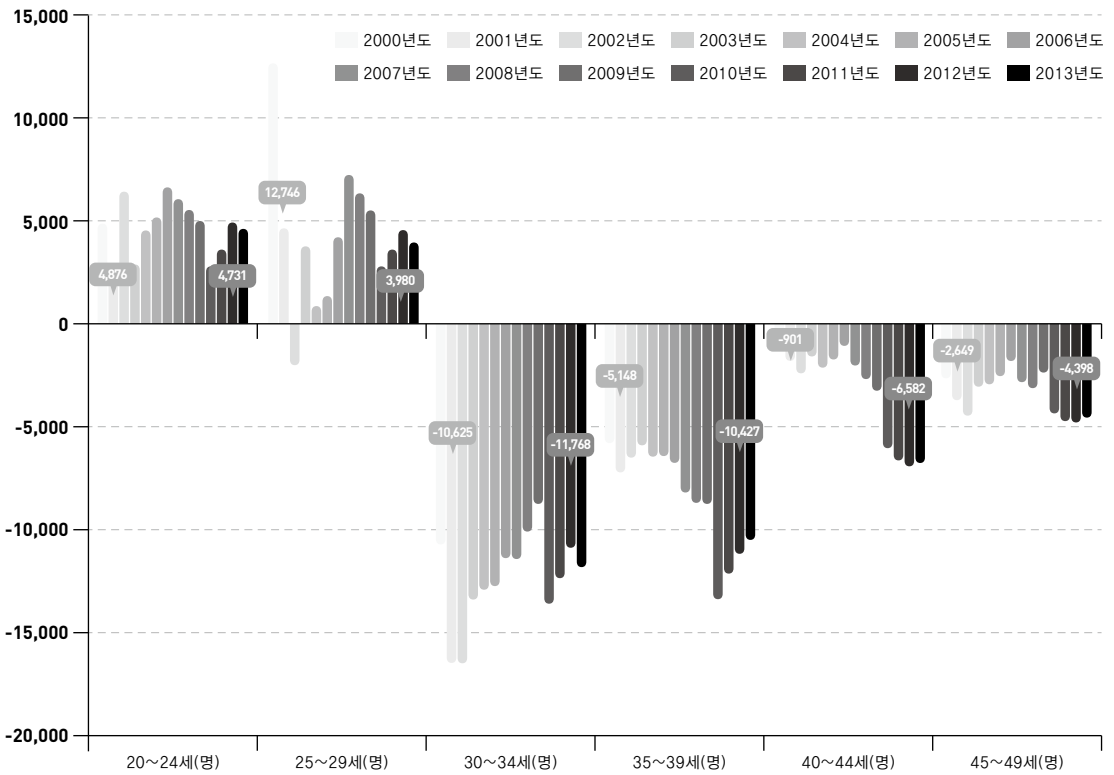
11) 통계청의 순 인구이동은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작성되었다.

12) 전출초과는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이며, 순 인구유출을 의미한다.



- 서울시 남성의 경우 서울시 여성보다 다소 낮은 30세 이후 인구유출이 발생함.
- 이는 군문제로 인한 학업기간 및 취업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림 2-9] 서울시 남성 연령범주별 순 이동자 수 (2000-2013) ●●●



주 : 순 이동자수는 서울시 전입자 수에서 서울시 전출자 수를 감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4, DB웹서비스.





III 서울시 저출산의 원인분석 및 정책적 제언¹³⁾

서울시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고용률과 주택정책의 필요성

「결혼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84%)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4%)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7%)¹⁴⁾

구분	순위	30~34	35~39	40~44
출산율과 (+) 관계	①	고용률	연립주택 구매력	연립주택 구매력
	②	주택 구매력	아파트 구매력	아파트 구매력
	③	아파트 구매력	고용률	실업률
	④	-	-	고용률
출산율과 (-) 관계	①	실업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②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35~39세 여성 유출 수	40~44세 여성 유출 수
	③	30~34세 여성 유출 수	실업률	-

주 : 서울시 주 출산연령층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재구성함.

13) 변수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이며 -1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고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상관계수 r 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r = \frac{1}{n-1} \sum_{i=1}^n \left(\frac{X_i - \bar{X}}{S_x} \right) \left(\frac{Y_i - \bar{Y}}{S_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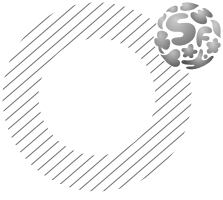
n : 표본의 크기

\bar{X}, \bar{Y} : 표본평균

S : 표본표준편차

본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의 표본수가 최대 13개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14) 김승권, 최영준,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결혼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 (복수응답 가능)



○ 고용률, 주택구매력과 출산율과 관계¹⁵⁾

- 서울시 30-44세 여성의 고용률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구매력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며 연소득대비 높은 아파트가격, 인구유출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남.
-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고용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연립주택구매력과 아파트구매력의 순으로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30-34세 여성에 비해 고용률보다 연립주택구매력, 아파트 구매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시 30-39세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출산율은 고용률에 크게 영향을 받음. 이는 경제력과 연결되는 문제이며 경제력은 다시 주택구매력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연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은 출산율을 감소시키며 또한 인구유출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초혼연령대 여성의 출산율은 고용률뿐만 주택구매력과도 큰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은 소득, 자녀(임신, 입양포함), 서울시 거주기간 등 매우 높은 기준과 경쟁률을 보임.

○ 정책적 제언 : 30-44세 여성의 고용률 및 주거안정

- 안정적이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복리후생 제도의 사용이 용이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 및 경제적 안정이 필요함. 이미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직업교육·훈련 또한 중요시 됨.
- 고용률과 더불어 가사일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요구됨. 일·가정양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만혼·늦은 출산과 저출산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없음.
- 서울시의 높은 주택비용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산을 늦추거나, 상대적으로 주택구매가 용이한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 주택구매의 어려움과 동시에 인구유출은 저출산을 야기하므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이 요구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순위 배정을 늘려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고 장기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구매력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함.

15) 출산률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상관분석에서는 각 변수들 간을 대칭적으로 취급하며 회귀분석과 다르게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구별이 없으며 변수가 확률적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각 변수간의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형적인(a priori) 고려를 통해 출산율이 각 변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비통계적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출산율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선형적인 경험과 이론적인 고려를 통해 설명한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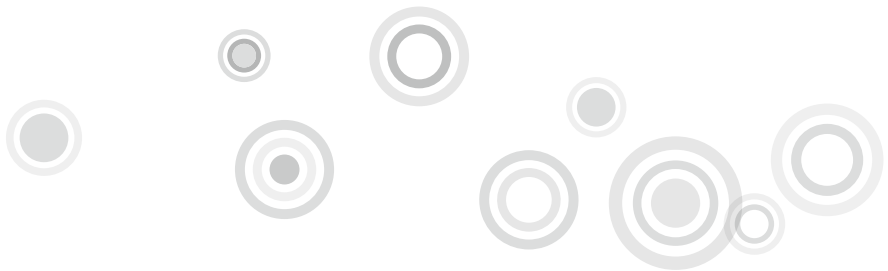
● 연령범주별 합계출산율과 요인별 상관계수

구분		30-34세	35-39세	40-44세
각 연령대별	고용률	0,46	0,20	0,05
	실업률	-0,59	-0,87**	0,82**
	순 인구이동	-0,30	-0,94***	-0,64**
서울시	주택 PIR	-0,30	-0,98***	-0,89**
	아파트 HSI	0,31	0,97***	0,89**
	주택 HSI	0,35	0,99***	0,93***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